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5.30원 내린 1,079.00원으로 마감
-------------	--------------------------------------

이날 환율은 미국채수익률 하락 및 코스피 호조에 직전영업일 대비 5.30원 내린 1,079.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최근 FOMC 회의록 내 매파적 발언이 공개되면서 미 국채 금리 상승 및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추세를 보이며 1,08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전일 미국채금리가 소폭 하락 반전함에 따라 달러 약세 분위기가 장 전반에도 이어졌다. 오전 전일 대비 2.80원 하락한 1,081.50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코스피 시장 호조로 인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흐름 및 네고물량으로 1,07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중 1,070원 중반대에서는 저점 매수에 하락폭이 제한되었고 서서히 낙폭을 회복하여 직전영업일 대비 5.30원 내린 1,079.0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0.8원 내린 1,008.46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81.50	1081.50	1076.40	1079.00	1078.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16.19	1016.30	1006.62	1009.26

금일 전망	금일 환율은 1,070원대에서 무거운 레인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

금일 환율은 1,070원대에서 무거운 레인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2.40원 내린(스왑포인트 고려) 1,076.0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美 국채금리 상승에서 비롯된 위험회피심리 어느정도 완화되며 하락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물 금리가 안정을 찾으며 뉴욕 증시 또한 1% 넘게 뛰어올랐고 국내 증시 또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상으로도 수출업체의 월말 네고 물량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되는 상황 속에 27일 예정되어 있는 美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증언을 앞두고 관망세 및 평창 올림픽 이후 북미 관계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여 하락 속도 제한 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9.67 ~ 1081.33 원
------------------	---------------------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55.86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40원 ↓ ■ 美 다우지수 : 25309.99, +347.51p(+1.39%)
--------------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8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1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